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4월 14일(목)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감정책단 57.4%, 나눔·기부 활동에 참여

‘약자를 배려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 기대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주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1년 4월 13일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ri2008@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4월 12일 ‘나눔과 기부 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은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고, 패자 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조사 개요

- | | |
|--------|------------------------------|
| ■ 조사시기 | : 2011년 3월 21일~2011년 3월 27일 |
| ■ 조사방법 | : 온라인 조사 |
| ■ 대 상 | : 15세 이상 생활체감정책단 패널 |
| ■ 규 모 | : 총 1,000명(남성 400명, 여성 600명) |
| ■ 분석방법 | :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차 빈도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나눔과 기부 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고, 모든 계층의 남녀노소가 평등하게 공존·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나눔·기부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 2011년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국 15세이상 생활체감정책단* 남녀(남성 400명, 여성 600명)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생활체감정책단은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대표적 생활공감형 정책 사업임. 2010년에는 녹색생활 실천, 일·가정 양립, 한부모 가족 지원, 고령화사회 대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 2011년 4월 생활체감정책단 발대식을 통해 제2기 정책단 활동이 시작될 예정임.

□ 전체 조사응답자 중 현재(1년 이내) 나눔·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4%이고, 성별에 따른 응답은 여성 56.8%, 남성 58.2%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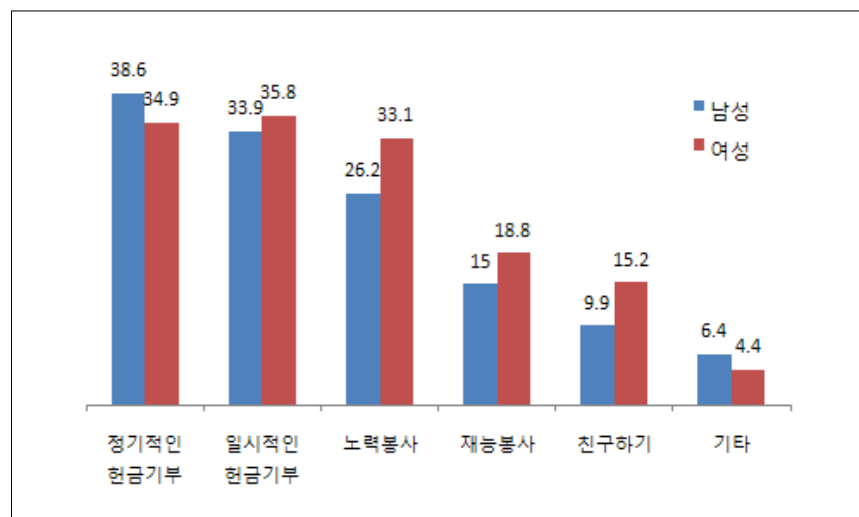
□ 여성과 남성 모두 자발적 동기에 의해 나눔·기부 활동을 시작 하는 경향이 크다(여성 39.6%, 남성 39.9%).

○ 여성은 ‘우연히 참가한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여성 6.7%, 남성 3%).

- 반면 남성은 '학교, 회사 등 소속단체 및 모임을 통해서' 나눔·기부 활동을 시작하게 된 비율이 높았다 (여성 10.6%, 남성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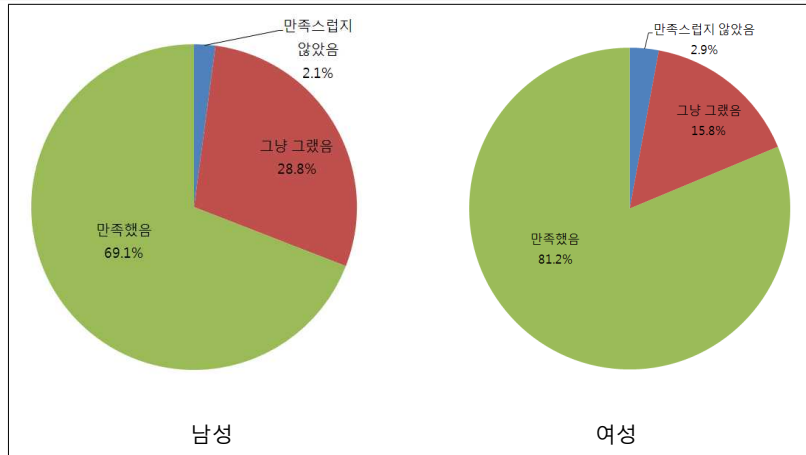
- 나눔·기부 활동의 형태로 남성은 정기적 헌금을, 여성은 일시적 헌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 특히 여성의 경우 노력·재능봉사, 친구하기 등 직접 참여를 통한 활동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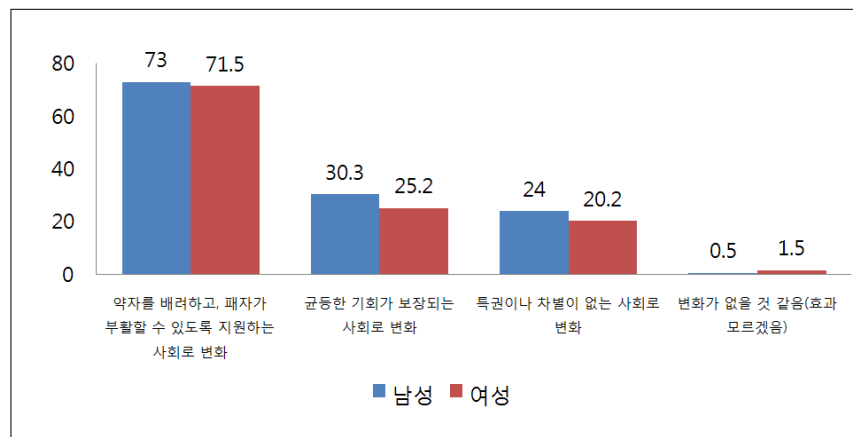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나눔·기부 활동 형태(중복응답)

- 나눔·기부 활동 후 여성 81.2%, 남성 69.1%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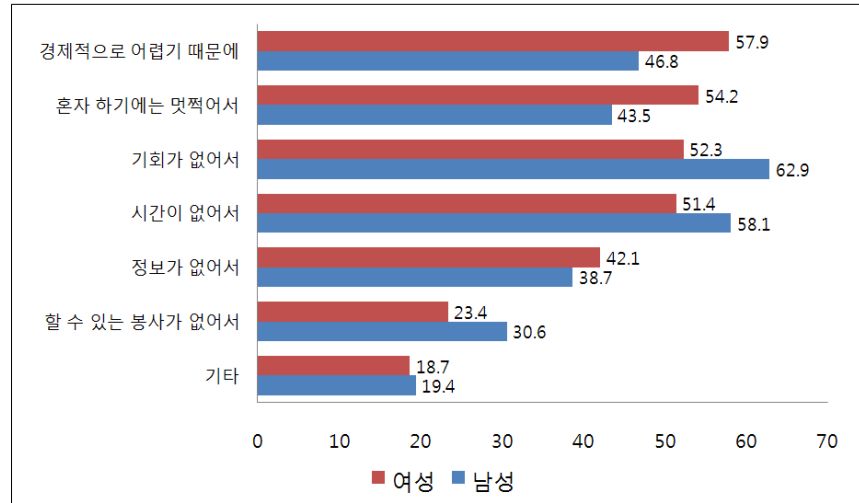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나눔·기부 활동 후 만족도

- 남녀 모두 나눔·기부 활동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고,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3] 성별 나눔·기부 활동에 대한 기대

- 한편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혼자 시작하는 데 따르는 부담감을 나눔·기부 비동참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해, 시간·여건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응답한 남성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 4] 성별 나눔·기부 활동 비동참 이유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약자·폐자에 대한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기부 활동이 공정사회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정사회의 발판이 되는 나눔·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 중 하나로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이다.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